

2017년 10월 31일, 표선면 표선1리 표선1리노인복지회관,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고옥년(여, 1936년생, 표선면 표선1리)

- 줄거리: 옛날에는 한라산을 신성한 장소라 하여 함부로 오를 수 없는 곳이라 여겼고, 백록담에는 말하는 전복과 소라가 산다고 하였다.

[제보자] 그때는 한라산에 정상??장 가는 사람이 엊어낫주. 우리 할머니네가 골아준 말인디. 백록담에 가면은 거기 전복도 있고 소라도 있고 고기도 산다는 거라. 백록담에 물이 바닷물처럼 있어가지고. 그때는 전복하고 소라를 잡아가믄 “아가가.”
하고 말을 했다는 거라.

[조사자] 백록담에 전복, 소라는 말을 헤마씀?

[제보자] 그 옛날에는 한라산이 이추룩 뛰카 부덴 생각도 못햇주. 나도 할머니네 말하는 게 궁금한 거라. 전복하고 소라도 잇덴 하난 어느마니 백록담에 물이 잇인고 헹가 봇인디 백록담에 전복이랑마랑 물이 흐꼼벵이 엊어라게.

- 핵심어: 한라산, 백록담, 전복, 소라